

투데이 칼럼

공장식 학년제의 종말, 전북형 'AI 속도 자율제' 로 학력 파산 넘어야

지방 소멸의 그림자가 짙어질 때마다 교육 관리들이 약속이나 한 듯 전면에 내세우는 단골 명제가 있다. 바로 '전북은 학령인구가 급감하고 학생 절대 수가 적어 수능 상위권 비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인구론적 체념이다.

그러나 이는 통계의 착시이자 면피용 물타기에 불과하다. 수능 성적의 지표는 단순한 머릿수 경쟁이 아니라 응시자 대비 상위 등급의 '비율(%)' 이기 때문이다. 우리보다 학생 규모가 훨씬 적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가 수능 국어·수학 1·2등급 합산 비율에서 각각 10% 인파와 9%대를 기록하며 매년 전국 최상위권을 강고하게 마크하고 있다는 사실은 전북의 4%대 상위권 학력 파산이 인구 구성의 문제가 아닌 공교육 시스템의 효율성 저하 때문임을 증명하는 객관적 증거다.

전북 학력 하향 평준화의 진짜 몸통은 19세기 산업혁명기 공장 노동자를 찍어내던 방식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반세기 전의 낡은 학년제 구조다. 한 교실에 나이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아이들을 일렬로 앉혀두고, 이해도와 역량의 차이를 무시한 채 똑같은 교과서를 똑같은 속도로 주입하는 공장식 컨베이어 벨트 교육은 이미 수명을 다했다.

이 경직된 체계 속에서 학습 속도가 빠른 아이는 지루함에 지치고 언어 장벽과 결손으로 뒤쳐진 아이는 영원한 낙오자가 된다. 수능 수학적 성적 전국 꼴찌(17위)라는 참담한 성적표는 이 경직된 구조가 낳은 필연적 결과물이다.



이 장 호 전 국립군산대학교 총장

이 과정에서 사교육을 무조건 억제해야 한다는 낡은 이분법적 도그마도 과감히 깨부수어야 한다. 공교육의 AI 인종 체계가 확립되면 사교육은 공교육의 진도를 흔드는 주범이 아니라, 아이들의 학습 속도를 정당하게 지원하는 생태계적 파트너로 기능할 수 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명확하다. 이미 사교육 시장이나 자기주도 학습을 통해 특정 교과를 마스터하고 온 아이들은 학교 수업 시간이라는 기계적인 반복 학습 대신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줘야 한다.

교육청 공식 AI 플랫폼을 통해 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정밀하게 검증하여 기준을 통과하면 단원별 공식 이수(Pass)를 인증해 주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선행 학습의 성과를 공교육 체제 내로 풀어 안아 수업 시간의 실질적인 자율성을 부여하고, 교사는 그만큼 확보된 물리적 시간과 에너지를 진짜 손길이 필요한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의 1:1 밀착 지도에 쏟아붓는 '하이테크-하이터치(High-Tech, High-Touch) 교육'을 실현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사교육을 무조건 억제해야 한다는 낡은 이분법적 도그마도 과감히 깨부수어야 한다. 공교육의 AI 인종 체계가 확립되면 사교육은 공교육의 진도를 흔드는 주범이 아니라, 아이들의 학습 속도를 정당하게 지원하는 생태계적 파트너로 기능할 수 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명확하다. 이미 사교육 시장이나 자기주도 학습을 통해 특정 교과를 마스터하고 온 아이들은 학교 수업 시간이라는 기계적인 반복 학습 대신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줘야 한다. 교육청 공식 AI 플랫폼을 통해 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정밀하게 검증하여 기준을 통과하면 단원별 공식 이수(Pass)를 인증해 주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선행 학습의 성과를 공교육 체제 내로 풀어 안아 수업 시간의 실질적인 자율성을 부여하고, 교사는 그만큼 확보된 물리적 시간과 에너지를 진짜 손길이 필요한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의 1:1 밀착 지도에 쏟아붓는 '하이테크-하이터치(High-Tech, High-Touch) 교육'을 실현해야 한다.

이를 통해 공교육 교사는 학생의 학업 데이터를 정밀 분석해 최적의

경로를 설계하는 '디지털 학습 코디네이터'이자, '정서적·사회성 멘토'로 격상된다. 나아가 이러한 자율제 교육을 받고 자란 인재들이 대입전형에서 나오되지 않도록, 전북 특별법 특례 조례를 통해 도내 거점대학과 연계한 '역량 중심 지역인재 특별전형 트랙'까지 보완해 주어야 한다. 점수로 아이들을 줄 세우던 냉혹한 평가자에서 벗어나 대학 진학의 문턱까지 함께 책임지고 달리는 '든든한 성장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줄 때, 무너졌던 사제시간의 깊은 신뢰가 기적처럼 교실 안에서 복원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교육 혁신의 대전제는 지자체와 교육청의 해결 수준 의 벽 허물기를 하는 것이다.

그동안 두 기관은 관할이 다르다는 핑계로 철저히 칸막이 행정을 고수하며, 지자체의 소멸 기금을 단기성과 위주의 선심성 전시 사업이나 일회성 하드웨어 토목공사에 소진해 왔다. 지자체장이 직접 나서서 재정력과 교육 인프라를 결합하는 공동정책 협의체를 상설화해야 한다. 지자체와 교육청이 한 몸이 되어 과감한 학년제 해체와 AI 교육 혁신으로 "지역 학교에 보내니 강남 학원보다 더 정교하게 내 아이를 키워주더라"는 확신을 부모들에게 심어주어야 한다.

교육을 살려 정주 여건을 사수하고, 정주 인구가 다시 학교를 채우는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어내는 것만이 소멸의 단두대 위에 선 전북 교육의 생존을 위해 선택해야 할 마스터플랜이 될 것이다.

이번 6월에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명예를 한 번 더 되새기고, 지금도 현장을 지키는 제복 공무원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감사를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지켜온 평화로운 일상을 시민 여러분이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현장의 모든 경찰관도 묵묵히 지금 이 순간에도 제자리를 지키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김민준 전북경찰청 교통안전계 경사

독자제언

6월이 되면 거리 곳곳에서 호국보훈의 달을 알리는 현수막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매년 맞이하는 달이지만, 제복을 입고 근무하는 경찰관으로서 올해 6월은 조금 더 특별한 마음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흔히 '호국'이라는 단어를 역사 교과서나 기념식에서 쓰는 거창한 표현으로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호국은 그리 멀리 있지 않습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

6.25 전쟁 당시 전선을 누비며 나라를 지켰던 시절부터 지금 이 순간에도 밤낮없이 순찰자를 타고 현장을 누비는 경찰관의 모습이 모두 호국의 연장선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당연한 일상은 과거 누군가의 평범하지 않았던 희생 덕분입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위험 속으로 기꺼이 뛰어든 제복 입은 이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오늘의 평온한 하루도 없었을 것입니다.

호국보훈은 거창한 구호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희생들을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사설

전주여고 100주년 트결전

'전주여고 개교 100주년 기념 특별 영란전'이 5월 22일부터 28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예술회관 차오름 1실과 2실에서 열려 관심을 모았다.

이번 특별전은 전주여고를 졸업한 미술인들의 모임 '영란회(회장 김분민)'가 대규모 영란전을 열었다. 특별전에는 29회 선배부터 73회 후배에 이르기까지 영란회 회원으로 활동하는 작가들뿐 아니라 독자적으로 작품 활동을 하던 작가들까지 가세해 총 55명이 작품을 출품했다.

서로 다른 색과 결, 그리고 각자의 삶이 담긴 작품들로 전통적인 작품에서부터 현대적인 작품에 이르기까지 회화, 조소, 공예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이 전시됐다.

이번 전시가 전주여고 100년의 역사를 기념함과 동시에 모두의 오늘을 돌아보고 응원하기를 소망한다.

한 재료와 기법으로 표현된 작품들에는 각자의 삶과 시선, 그리고 예술에 대한 열정이 담겨 있다. 이번 전시는 회원들이 함께 이어온 예술적 교감과 창작의 결실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다.

황남현 회장은 "33년의 시간 동안 이어온 열정의 기록, 그리고 앞으로 계속될 예술의 여정에 귀한 걸음으로 함께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한편 호미회는 지난 1994년 9월 9일 전북예술회관에서 창립전을 열었다. 그 뒤 올 2026년 5월 29일까지 총 33회 전시회를 열었다.

2019년 11월 제26회 때만 전북여성인재지원센터에서 전시회를 열었다.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전북예술회관 전시실에서 개최했다.

제33회 호미회전 - 전북의 향기

'제33회 호미회전 - 전북의 향기'가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예술회관 기스라 2실에서 열렸다. 작가와 출판작은 다 음과 같다.

고문 이승백 '나목', 고정순 '강천사 계곡', 김병희 '승리', 김영남 '바닷가의 휴일', 문인구 '살', 종구 박선경 '공정의 힘', 부회장 안순덕 '꿈', 유명례 '꼬꼬들의 산책', 장순자 '정물', 정문의 '내 마음', 허미다유미(許美由美) '생명의 모험', 한지현 '피어나다', 회장 황남현 '은교지신' 등이다.

호미회(湖美會)는 '호남 미술인 연합회'를 말한다. 서로 다른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시간을 살아온 사람들이 '오직 그림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모였다.

유화, 수채화, 아크릴화 등 다양한

사내·외기고 및 칼럼은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